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 사례 분석*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라진 영웅>을 대상으로—

이영호**

<차례>

- I. 문제제기
- II.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의 의의
- III. 사례 분석
- IV. 논술교육을 위한 제언

I. 문제 제기

그동안 국어교육 학계에서는 논술 교육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술이 태생적으로 평가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에서 출발한 까닭에 입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논의의 열기가 다소 사그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국어교육에서 논술 교육이 가지는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학습자들이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은 사고 도구로서의 언어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국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이제는 입시도구로서의 논술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 충실한 논술교육 방향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 주신 광춘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¹⁾

입시도구로서의 논술은 선발과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선발과 배제를 위해서는 확실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등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사고의 흐름을 제한하여 모범 답안에 근접한 글쓰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설악은 생각을 얼버무린 피상적 해결책의 나열로 대응하게 되며,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의 생각과 느낌을 사상해 버린 결과물을 산출해 낸다. 근자에 강조되고 있는 통합 논술 또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이 통합·융합되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이것이 과연 중등 교육의 수준에 맞는 글쓰기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 논술이 강조하는 융합의 과정이 화학적 융합이 아니라 물리적 혼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사고보다 낮은 차원의 얕은 사고의 연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국어교육에서의 논술 교육이 선발을 목적으로 한 논술 고사와 선을 긋고, 학습자의 사고력이나 쓰기 능력 향상과 같은 교육적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논술 교육이 쓰기 주체가 지닌 인지 능력과 체험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활발한 사고와 성찰을 끌어낼 수 있는 글쓰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 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글쓰기 사례를 분석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1) 논술은 외연이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심지어 수식 풀이를 기반으로 한 수학 논술이나 과학 논술이라는 말까지 사용되는 것을 보면 글쓰기 영역을 벗어나 쓰이기까지 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술을 ‘어떤 문제 상황이나 쟁점에 대해 논증을 사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글쓰기’로 규정하고, 실제 학습자들의 논술문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해나가도록 하겠다.

II.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의 의의

논술 쓰기는 형식적 논리의 구축과 유려한 문장 쓰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논술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필자의 공감적 인식과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해석, 보다 나은 해결을 지향하는 사색의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에게 주어지는 문제 상황이 필자의 경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힘들다면 필자가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나’와 관련이 없다는 거리감을 느낄 때 필자의 쓰기 동기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글을 쓰더라도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게 되고 만다.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는 논술을 글쓰기 주체의 언어적 실천의 장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행동, 명백한 도덕적 태도 그리고 사람과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문학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경험에 바탕한 형태로 제시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문학적인 경험은 직접성과 감성적인 설득력을 가지며, 세계와 자신과 인간 상황을 비추어보는 학생들의 심상에 강력하게 공연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옳고 그름, 칭송받을 만한 것과 반사회적 속성, 정당화될 수 있거나 될 수 없는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²⁾

또한 문학과 논술의 결합은 학습자로 하여금 쓰기를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심화시키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읽고 반응하는 일은 지적이며 감성적인 수용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한 반성적 사고의 수행과 비판적인 통찰력을 형성하는 자기 표출 행위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국어교육에서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내용의 풍부성과 정확성, 논지 전개의 일관성 등에 두었지만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는 문학적 경험을 매개로 하여 주체의 사고와 감수성을 표현

2) 로젠 블라트 저 / 김혜리 · 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4~16면.

한다는 점에서 인간성, 일상성, 진실성, 성실성, 수행성과 같은 표현인문학의 가치 항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글쓰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³⁾

논술의 본질은 쓰기 주체의 의견 전술에 있다. 의견 전술이 빠진 글은 그것이 논술의 장르 문법에 아무리 충실했고, 문장 표현이 아무리 매끄럽게 잘 읽히도록 쓰였더라도 알맹이 없는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쓰기 행위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논술 교육이 형식과 기능 위주의 쓰기 교육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점에서 논술의 영역을 언어적 재능이나 논리적 사고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술이 주체의 언어적 결단과 실천 의지를 보이는 언어를 통한 자기실현의 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⁴⁾

논술 쓰기에서 문학은 바로 주체의 언어적 결단과 실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학이 지닌 구체적 형상성은 학습자들에게 사고의 설마리를 제공하며, 문학이 지닌 재미는 학습자들에게 인생의 갖가지 현상에 참여하는 기회와 흥미를 줄 수 있다. 다음에서는 문학이 논술 교육에서 지닐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대상으로 실제 학습자들이 제출한 논술문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

III. 사례 분석

1. 쓰기 대상 및 상황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논술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

3) 박윤우, 「인지적 과업으로서 ‘문학 논술’과 비평 교육의 지평」, 문학교육학 24, 2007, 325~327면.

4) 우한용, 「문학과 논술, 그리고 삶」, 『문학과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8, 21~25면.

집되었다.

- 기간 : 2009년 4월 6일~4월 13일
- 대상 학습자 : 서울 소재 S고등학교 11학년 학습자 3개 반 115명(남-56명, 여-59명)
- 논술 과제 :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등장인물인 한병태의 행동 평가하기
- 해당 차시 : 2차시 수업
- 수업 진행 : 수업 교사-본 연구자
 - 1차시 수업-작품 이해를 위한 학습지 완성
 - 2차시 수업-논제 제시 및 글쓰기 시간

본 연구의 논술 과제는 11학년 문학 과정 수업의 수행 평가 활동 및 과제로 학습자들에게 주어졌다. 학습자들은 수업이 있기 2주일 전부터 해당 작품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도록 안내 받았다. 이 작품을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소설이 학교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는 아이들 간의 다툼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이해가 용이하다고 보았고, 또 교실 상황이 사회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의견 진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 교실 수업은 총 2차로 진행되었는데, 1차시에 학습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학습지를 친구들과 의논해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지의 질문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문 사항을 이해시키는 것 외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지 문항에 해당한다.

5) 이 작품을 대상으로 한 수업 비평 연구를 보면 학습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활발한 이해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물론 초등학교 학습자이다 보니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이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작품이 지난 학습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 제재로서의 유용성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재찬, 「국어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 연구』 25, 2006 참조

〈문학 수행평가 학습지〉

2학년 반 성명 :

여러분들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작품을 읽었습니다. 아래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물음들입니다. 작품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I.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II. 인물 평가

1. 다른 아이들과 달리 병태가 석대에게 저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2. 엄석대가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3. 작품에 나오는 5학년 담임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을 비교해 보세요.

III. 엄석대가 반장인 학급의 한 학생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써 보세요.

학습지는 먼저 줄거리 요약을 통해 작품 전체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논제에 해당하는 한병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한병태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에 대해 학습자들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들이 작품 속의 상황으로 들어가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생각해 보고, 작품의 상황과 인물의 선택에 대해 성찰적으로 사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학을 활용한 쓰기 과제인 만큼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심도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의도에서 구성된 것이며, 학습자들은 학습지의 물음에 적극적인 반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2차시에는 아래에 제시된 지문을 읽고 논술문 쓰는 시간을 가졌다.

※ 다음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 중 일부입니다. 병태의 고민에 유의하면서 이 글을 잘 읽어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앞선 내용〉

서울에서 시골학교로 전학 온 '나'는 반장인 엄석대에게 대항하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석대에게 굴복하고 난 후, 다시 예전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연히 학급 우등생들이 석대 대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해 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갑작스럽고도 세찬 유혹에 휘말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유혹이란 방금 알아낸 이 엄청난 비밀로, 어느 누구도 용서할리 없는 무서운 비행(非行)의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이미 끝난 석대와의 싸움을 뒤집어 보자는 것이었다. 담임 선생이 아무리 무정하고 성의 없다 해도 석대의 그 같은 비행까지는 묵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석대를 잡기만 한다면 지금껏 그를 두둔해 온 담임 선생에게 멋진 양값을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유파지르기만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멋진 양값을이 될 것이었다. 얹눌러 참고는 있어도 실은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아이들에게 나는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고, 쓰라림으로 포기해야 했던 자유와 합리의 자매가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나는 분명 기습 두근거렸다.

그러나 다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고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담임 선생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들여 있던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미 있는 것은 모두가 심드렁하고 새로움과 변화는 오직 귀찮고 성가실 뿐이라는 듯한 그의 표정에서 라이터 사건 때의 침담한 실패가 떠오른 까닭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코앞에 들이대지 않는 한 그의 둔감과 무관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성싶었다.

거기서 나는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움질릴 수 없는 증거가 폐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있으나, 그들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 그때껏 묵인하고 협조해 오던 석대의 그 같은 비행(非行)을 담임 선생에게 밝혀 주리라는 보장 또한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석대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석대와 힘을 합쳐 담임 선생의 공정한 채점을 방해해 오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그때 분명히 석대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놓고도 담임 선생이 물자 빌려 주었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던 병조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르고, 모처럼 석대를 마음놓고 고발할 기회를 주었건만 오히려 내 자신의 자질구레한 잘못들만 가득 적혀 있던 시험지들이 섬뜩하게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때는 이미 두 달 가까이나 맛들인 굴종의 단 열매나 영악스런 타신도 나를 말렸다. 사실 이런저런 어른들 식의 정신적인 허영을 빼면 석대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말했듯, 나의 끈질기고 오랜 저항은 오히려 훈장이 되어 내게 여러 가지 특전으로 되돌아온 까닭이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어린이 자치회와 다수결의 자매를 받았던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반(班)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서울에서의 내 위치였던 분단장급보다 크면 커지지 적지는 않았다. 성적에 있어서도—석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아이들의 빌목을 잡아 주는 게 내게 유리할 수도 있었다. 일 등을 넘보지 않는 한 이 등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내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 병태는 석대의 비리를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병태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세요.

- 유의사항 : 1. 병태의 결정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분명히 할 것
- 2.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작품 내용, 독서 체험, 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 할 것
- 3. 분량은 1,200자 이상으로 할 것

논술문은 연구자가 제공한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들은 못다 쓴 과제문을 다음 차시까지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 작품 중 인용 부분은 ‘한병태’가 ‘엄석대’의 시험 중 부정행위를 알고 이 사실을 고발할까 망설이는 내용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은 이 부분을 읽고 한병태가 고발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병태의 행위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인물이 겪었던 고난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는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개인이란 근원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청소년기의 경우 경직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학습자와 동일시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도덕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개인적 경험 등에 의해 다양한 판단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논제를 설정한 이유에 해당한다.⁶⁾

쓰기에 앞서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할 것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이를 명확히 뒷받침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쓰기 분량은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단락 이상의 전개

6) 이와 유사한 사례로 콜버그가 실험했던 도덕적 딜레마의 경우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콜버그는 중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을 훔친 사람의 예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면담을 실시했다. 이 실험을 통해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의 6단계를 제시했는데,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글쓰기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콜버그의 실험에 대한 사항은 ‘윌리엄 크레이인 저 / 송길연 외 역, 『빌달의 이론』, 시그마프레스, 2005, 187~214 참조

가 필요하고 밀도 있는 단락의 내용 구성은 300자 정도의 분량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00자 이상의 글쓰기를 학습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 학생 가운데 미 제출자 9명을 제외한 총 106편의 논술문—남학생 47편, 여학생 59편—이 수집되었으며, 줄거리 요약 1편과 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1편의 글을 제외한 총 104편의 글을 본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2. 학습자 논술문 분석

학습자들의 논술문을 분석한 결과 한병태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 한병태의 결정에 대한 학습자의 판단

의견 구분	지지	비판	기타	합계
해당 의견 수	65	35	4	104

한병태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습자들은 그의 결정에 대해 ‘어쩔 수 없다, 찬성한다, 옳은 일이다, 공감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현명한 결정이다, 잘한 일이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여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한병태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고발 행위의 성공 가능성 회박,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이익의 보존 등으로 나타난다. 그 반면에 한병태의 입장을 비판하는 학습자들은 ‘아쉽다, 잘못되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겁하다, 공감할 수 없다, 실망스럽다, 한심하다, 용기없는 행동이다, 성급한 판단이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비판의 주된 이유는 병태의 선택에 내재한 이기심이나 나약함에 대한 불만, 병태의 선택이 가져올 학급에서의 부정적 영향, 나아가 지식인으로서 상징되는 병태의 책무 방기와 그로 인한 사회 발전의 저해 등을 들고 있다. 기타로는 유보적 판단이 4건 나타났다.

수집된 104편의 논술문을 대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출처, 주장과 근거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논술문을 귀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논거의 출처와 타당성에 의한 학습자 논술문 분류〉

1. 작품 내적 근거 위주의 서술	
1) 설명 위주의 서술	52편
2) 해석 위주의 서술	10편
2. 체험적 근거를 도입한 서술	
1) 부적절한 체험적 근거의 제시	5편
2) 적절한 체험적 근거의 제시	16편
3) 체험적 근거에서 일반화된 가치 제시	2편
4) 체험적 근거 위주의 수필식 서술	1편
3. 배경 지식을 활용한 서술	
1) 매체 경험 활용	3편
2) 교양 상식 활용	8편
3) 독서 경험 활용	1편
4) 교양 상식 활용+독서 경험 활용	2편
5) 체험적 근거 제시+매체 경험 활용	1편
6) 체험적 근거 제시+교양 상식 활용	1편
4. 기타-논제 제기를 통한 서술	2편

학습자들은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작품 내적 근거를 활용하였다. 이는 문학 작품을 제재로 한 논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학습자마다 작품 내적 근거를 활용하는 방법과 비중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오로지 작품 내적 근거만을 통해 주장을 펼치는 글에서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것은 간단한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작품 외적 근거에 치중하여 논의를 펼치는 글까지 논증의 양상은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었다. 제시된 분류 목록에서 드러나듯이 학습자들은 60% 가량이 작품 내적 근거에 바탕한 내용 설명과 해석을 위주로 논술문을 작성하였으며, 25% 가량이 체험적 근거를 들어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5% 가량이 교양 상식이나 매체 경험, 독서 경험 등과 같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논술문을 작성하였으며, 기타로는 학습자 스스로 논제를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글도 2편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위 도표에서 분류한 목록에 의거하여 학습자의 논술문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다.

1) 작품 내적 근거 위주의 서술

학습자 논술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작품 내용에 바탕하여 한병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설하며 주장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다. 한병태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은 작품에 나타난 한병태가 처한 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반대로 한병태를 비판하는 글은 한병태의 결정에 내재한 이기적 계산을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병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 된다. 왜냐하면 석대의 비리의 고발이 성공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시간에 선생님께 바로 고발했을 때 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고발은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석대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이 글에서 나왔다 싶어 병태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다. 석대에 대한 많은 저항 끝에 오히려 훈장이 되어 병태에게 특전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에 대한 영양력도 서울에서의 분단장급보다 크면 커지지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석대가 계속 반에서 공부잘하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준다면 일등은 석대가 차지한다고 해도 이등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 병태의 차지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 군의 글)

병태는 지금 아이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석대의 비행을 막게 된다면 병태가 석대의 괴롭힘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석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좋아할 것이다. 게다가 선생님과 부모님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 성적에 관해서도 병태의 결정은 옳지 않다. 물론 병태의 생각대로 석대가 다른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주는게 유리하긴 하다. 하지만 전학 오기전 서울학교에서 상위권이었던 병태가 다른 아이들과

공정하게 일 등을 목표로 겨루는 것도 편찮다고 생각한다.

(이○○ 양의 글)

한병태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묻는 논제에 대해 학습자들의 절반 이상이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대부분 ‘문제 상황 요약→의견 제시→근거 나열→주장의 반복 강조’에 해당하는 논술문 구성을 보여 주었다. 제시된 인용문에 잘 드러나듯 이 병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고발의 성공 가능성 회박과 따돌림에 대한 염려, 개인적 이익의 보존을 근거로 나열하고, 병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고발이 가져올 궁정적 변화와 이를 포기하는 병태의 나약한 태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된 글들이 독창성이 부족한 일반적인 의미 생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글의 수준 차이는 표현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작품 내적 근거를 위주로 논증을 전개한 대부분의 글이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설 위주로 쓰였다면, 해석 위주의 서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병태의 결정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나는 약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강자에 대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약자는 약하기에 그에 따른 생활방식이 있다. 강자는 강하기에 강하게 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약자가 강자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 그리고 이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진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약자로서 나는 병태의 행동을 응원하는 바이다.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강자에게 굴복하면서 그럼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병태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들의 영웅이라고 감히 칭한다.

(김○○ 군의 글)

해석 위주의 서술은 작품을 바라보는 일정한 틀을 전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학습자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의 대립된 구도로 파악하고, 병태

의 행동을 약자가 지녀야 할 처세술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병태는 약자들의 영웅으로 규정되기까지 한다. 또 다른 학습자의 글을 보면 작품의 교실 상황을 군부독재 시대를 비유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보수적이고 이기적 속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도 하는데, 이처럼 해석 위주의 서술은 작품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규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장을 펼쳐나가는 방식을 태하고 있다. 이는 작품을 바라보는 필자의 안목과 개성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설명 위주의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된다.

2) 체험적 근거를 도입한 서술

학습자들의 논술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작품 내용에 바탕하여 병태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와 유사한 개인적 체험을 활용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체험과 주장의 연계성과 적절성에 따라 세 단계의 수준이 나타난다. 체험적 근거가 주장하는 맥락과 맞지 않는 경우, 체험적 근거가 적절히 제시된 경우, 체험적 근거를 통해 일반화된 가치를 추출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이 학습자들의 논술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신의 체험을 수필식으로 서술한 글도 한 편 나타났다.

나도 대충 친구의 억지로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있었다. 같은반친구의 MP3를 점심시간에 책상서랍에 있다고 꺼내서 운동장으로 가져오라고한 그 일을 생각하면 만약 학교에 걸리면 그 애는 분명히 내가 훔쳐서 자기한테 준것이라고 주장하고 힘이 약하 나는 분명 사실대로 말했다간 오히려 내가 나중에 밖에서 맞을 생각을 하면 어쩔수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떠 오른 방법이 그 친구한테 누가 책상밑에 MP3를 가져오라 했다 말하고 그 훔쳐오라는 친구에게는 MP3를 애가 지금 듣고 있어서 못가져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병태는 담임선생님이랑 따로 얘기해서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든다.

(김○○ 군의 글)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쓸쓸하며 시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내가 따돌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병태와 비슷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엄석대와 같은 한 아이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이유조차 몰랐던 나는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었다. …… 5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그대로 느껴지고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한다. 초등학생이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나보다. 그렇기에 한병태는 이러한 아픔을 2번씩이나 느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박○○ 양의 글)

불에 덴 사람이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체험은 인간의 가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지 않은 수의 학습자들이 제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개인적 체험을 한병태의 결정에 대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제시문의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이 한병태의 경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자신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서술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어색한 연결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글은 개인적 체험이 소설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경우로, 학습자들의 글 대부분은 이처럼 소설의 내용과 개인적 체험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에서 힘싸다고 소문난 노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우리들은 목이 말라서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떠오기를 하였다. 내 친구 ○○은 쳐서 물을 떠 오는 도중에 그 노는 애랑 부딪쳐서 바지를 거의 다 젖게 했다. 우리는 ○○에게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위로의 말은커녕 그냥 가만히 있었다. 다음 쉬는 시간이 오자 그 노는 애가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내친구 ○○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그 자식을 말리거나 때렸으면 됐는데, 우리는 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누구도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 경험이 있는 만큼 병태를 이해 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비슷하게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

폭력에 대항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폭력이 줄어들고 힘없는 친구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교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해봤다.

이 소설에서 병태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남보다 여러 가지 뛰어난 그는 불의를 없애는데 앞장 서 주었으면 했다. 엄석대는 거의 독재자와 같다. 그러나 병태는 그 지배로부터 학급을 구해줄 아이이다. 그가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 저항을 하다만계 아깝다. 또한 6학년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알고 보니 이 소설에서 폭력으로 그 독재자를 해결하는 셈이다. 폭력을 써서 해결하면 새로운 폭력이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 석대와 같은 독재자로부터 다수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생각을 마련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최○○군의 글)

제시문은 체험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낸 사례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중학교 때 부당한 폭력의 횡포 앞에 친구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를 작품의 의미와 연계하여 폭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6학년 담임선생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 나타난 폭력성을 비판하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 부분은 예리한 비판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체험을 활용한 논술문이 글에 활기와 진정성을 불어넣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논술 교육은 학습자의 체험을 중요한 글쓰기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3) 배경지식을 활용한 서술

학습자들은 논증을 펼쳐 나가기 위해 자신들이 지난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작품 내용, 독서 체험, 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 할 것’에서 이미 배경지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비율은 전체 글의 약 15% 정도로 작품 내적 근거나 생활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주로 활성화한 배경지식은 매체 경험, 교양 상식, 독서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TV의 동물 프로그램에서 말을 듣지 않는 개를 주인에게 순종하는 착하고 순한 개로 바꿔주는 파트가 생각났다. 예를 들어 어떤 말썽쟁이 개가 있는데 도저히 그 개를 감당하지 못한 주인이 프로그램에 의뢰를 한다. 그 개는 처음엔 매우 공격적이지만 충격을 주거나 여러 복종을 하게하는 방법들을 통해 주인에게 복종하는 순한 개로 바뀌게 된다. 달라진 개의 태도에 주인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 개는 계속 말을 잘 듣는다. 여기서 개는 한병태와 주인은 염석대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 개는 아마 더 편해진 생활에 그다지 예전처럼 반항할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이 작품 속의 한병태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조○○양의 글)

매체를 활용한 글은 104편의 글 중 4편에 나타났으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내용이 3편, 영화의 경우가 1편 도입되었다. 학습자들은 인용된 글에 나타나듯 논제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제시된 글에서 한병태를 길들여진 개에 비유한 것처럼 다른 글에서는 염석대를 고발 프로그램에서 본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악한과 동일시하거나 작품 내의 상황을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매체를 활용한 글에서 학습자들은 작품의 상황과 매체에서 본 프로그램 내용과의 유사성을 통해 논증을 진행하는데, 이는 앞서 살핀 체험적 근거의 활용과 비슷한 양상에 해당한다. 체험적 근거의 도입이 필자의 직접적 경험에 해당한다면 매체 인용은 간접 경험으로서 작품 상황과의 동일시를 통해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제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려 함으로서 반 아이들처럼 힘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친일파들도 생겨났었지만, 독립군, 안중근, 김구선생님처럼 일본에 대항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비록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 일본에 맞서 싸운 우리나라 사람들, 70년대 대

통령에 맞서 싸운 미국 기자들, 이들 모두 ‘권력’이라는 힘에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싸웠다. 만약 한병태도 이들처럼 포기를 안하고 계속 노력했더라면 새로오신 담임선생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엄석대의 비리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박○○양의 글)

교양상식을 활용한 경우는 모두 11편 나타났는데, 8편의 글에서 시사적 이슈나 역사 지식을 논거로 사용하였다. 시사적 소재로는 노무현 대통령 금품 수수 사건, 김용철 변호사 폭로 사건과 같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도입되었고, 역사적 사실로는 일제시대의 친일 행위, 민주화 운동 관련 사항 등이 활용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병태의 선택이 지난 의미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시사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병태의 선택이 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생성해 나가고 있다.

개인의 견제와 비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모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권력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권력은 견제장치를 상실했을 때 반드시 타락하고만다는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비판을 법으로 보장하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병태는 엄석대의 독재에 견제, 비판장치가 되어 주었어야 한다. 만약 6학년이 되어서까지 엄석대의 독재가 계속되었다면 과연 그학급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어려서부터 소시민적삶을 살아야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욱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밝은 병태가 앞장서서 비리를 고발하고 일어났어야했다.

(백○○양의 글)

교양상식을 활용한 경우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구조화된 관점을 통해 논증을 구사하는 글도 3편 나타났다. 제시된 인용문에서 필자는 삼권분립 원칙의 관점에서 석대의 행위가 지난 문제점을 살피고 병태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병태의 결정에 대해 법률 지식에 해당하는 방관죄를 적용시키기도 하고,

집단 군중심리 현상에 바탕하여 반 아이들의 심리나 병태의 행동을 분석 한 경우도 있었다. 시사적 소재나 역사 지식을 도입한 글이 사례를 통한 동일시의 논증 유형을 보였다면 이들은 이론적 틀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자유를 억압해도 아무도 쉽게 저항하지 못했던 시대에 허망하게 죽었던 삶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본다. 비록 김동인의 ‘붉은산’이라는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는 폭력적 상황에서 저항한,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 ……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던 간디의 말을 떠올려 본다. 그는 “진정한 해방은 단지 외국지배자의 퇴각을 의미하지 않고 억압의 구조를 길들여져 온 심리적 습관과 욕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일 이라 했다. 사회 곳곳에 있을 5학년 2반 즉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부당한 상황은 간디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배받는 것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군의 글)

독서 경험을 활용한 경우는 총 3편의 글에 나타났다. 3편의 글에 나타난 자료는 인용된 글에 보이는 소설 ‘붉은 산’과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간디의 언급, 또 소설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와 윤리교과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군자는 대로를 걸어야 하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맹자의 언급 정도가 있다. 이 중 소설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경우는 독서 경험이라고 하기에 힘든 수준이다. 그만큼 학습자들이 논증을 할 때 독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논제 제기를 통한 서술’이 있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논제를 필자가 좀 더 구체화시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논증을 해 나가는 방식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논거의 출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좀 다른 성격의 글로, 이 유형은 2편이 나타났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고 그에 맞서 저항하기도 했었던 병태가 과연 이 비밀을 묵인하면서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 내가 병태였다면,

정직함 때문에 당하는 따돌림의 슬픔보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됨을 알고도 용기내어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더 슬플 것이다. …… 이렇게 조그마한 비리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흐른 뒤에 더 큰 비리에 대하여 합리와 자유를 주장하겠으며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소리 낼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고, 진실은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굴종의 열매로서의 자유가 아닌 진실로서 얻어지는 자유와 합리가 진정으로 병태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택일 것이다.

(김○○ 양의 글)

제시된 글은 병태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원으로 초점화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병태의 결정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처럼 ‘잘했다’, ‘비겁하다’고 말하는 대신 ‘인간이 양심을 속이면서 행복복해질 수 있을까’란 질문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면서 글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필자가 해석을 가하고 초점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논제에 대한 초점화 작업은 보다 정치한 주장과 논증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 교육에서 필자가 주어진 논제를 자기의 명제로 해석하고 초점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3. 학습자 논술문 평가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문학 과목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논술문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다.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본문에서 분석한 틀에 의거하여 밝히자면 ‘해석 위주의 서술’, ‘체험적 근거에서 일반화된 가치 제시’, ‘구조화 된 관점에 기반한 서술’, ‘논제 제기를 통한 서술’에 속한 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속한 글들은 논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나 지식, 경험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자의 독창적 해석이나 가치 발견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작품 내적 근거 위주로 서술한 글들을 살펴보면 전체 논술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글들이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여기에 속한 글들은 대부분 줄거리 요약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작품 내용의 나열을 통해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해석을 위주로 한 글들은 작품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규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장을 펼쳐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약과 나열을 위주로 작성된 설명 위주의 글보다는 필자의 관점과 개성이 드러나는 해석 위주의 글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해석 위주의 글이 모두 설명 위주의 글보다 뛰어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태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병태는 고발하지 않은 이유로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댔다. 여기서 나는 전체라는 집단 앞에서 철저히 파괴되어가는 한병태를 보면서 만약 병태가 그 전체의 집단을 자기편으로 돌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 한병태가 고발하지 않은 이유로 굴종의 단열매를 대었다. 내가 생각하기론 병태의 이기주의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합리와 자유의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데, 본인의 권리를 되찾았다고 등을 돌려버리는 병태의 모습은 나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물론 1학기 때 당했던 것들과 비교해보면 복수쯤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듈다.

(구○○ 군의 글)

독재자들은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만들어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권력을 채운다. 비밀경찰을 만들어 개인이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하고, 자신들의 명령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개인에게는 잔혹한 처벌을 내린다. 이 독재자들은 개인에게 복종만을 강요하고 복종을 하는지 안하는지 항상 감시한다. 만약 복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고문시키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비열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엄석대를 보면 독재자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아니 우리 학급에서도 그릇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복종

하고 무서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여도 그냥 내버려 둔다. 만약 그 행동에 비판하면 그집단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이 심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게 바램이다. 모두가 공평하고 비리등도 없는 정말 깨끗한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 양의 글)

첫 번째 인용된 글은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작성된 것이며 두 번째는 해석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에 해당한다. 첫 번째 글이 작품 내용에 대한 적절한 언급과 논평을 토대로 쓰여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 두 번째 글은 작품의 상황을 독재 정치에 대한 우의로 읽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론 부분에 가서는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언급에 그치고 만다. 이처럼 작품 내용에 대한 적절한 언급과 논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간 경우에는 설명을 위주로 한 글이 해석을 위주로 한 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체험적 근거를 도입한 서술에서는 필자가 든 체험이 상황 맥락에 적절한 지의 여부가 일차적인 평가 요소가 되었다. 당연히 적절성을 가진 글이 그렇지 않은 글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품 내용 및 본인의 주장과 상관성이 있는 적절한 체험을 도입하여 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적절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의 개별적 체험을 일반적 가치 차원의 문제로 전환시켜 깊이를 더한 글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가 초등학교때 병태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안좋은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난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근데 담임선생님은 그냥 모른척을 하셨다. 거기까지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알아버린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서 병태의 결정은 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겠지만 병태의 상황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병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정○○ 양의 글)

필자의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간단한 쪽지 시험이지만 반 전체가 단체로 컨닝을 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절대 컨닝이 좋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다. 그 때 만약에 내가 단체컨닝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면 우리반 친구들은 전부 선생님에게 혼났을 거고, 난 반에서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 만약 병태가 양심을 선택해 반 아이들이 혼나고 병태가 또 다시 예전의 상황, 아니 더 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병태는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건 양심과 개인적인 욕심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말고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맞춰갈수 있는가 하는 성격 문제로도 나는 생각한다.

(윤○○ 양의 글)

인용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글은 필자가 비슷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병태의 입장이 십분 이해되고 또 정당하다는 일차원적 논증을 구사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거리를 두고 이를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의해 두 번째 글은 자신의 경험과 병태의 경험이 지닌 상관성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인간과 적응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끌어내어 논의의 깊이를 얻고 있다. 이처럼 체험적 근거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적 체험에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나 추상적 원리를 추출해내는 것이 필자의 논술 능력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지식을 활용한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들의 논증에서 배경지식의 활용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사항으로 독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배경지식을 깊이있게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만드는 능력 또한 논술문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혁명은 시작이 힘들 뿐이지 시작을 하면 과정을 밟아 나가기만 하면된다. 인내심의 문제일 뿐이다. 예로들자면 이육사선생님이 대표일 것이다. 이육사 선생님은 일본에서 독립되는 날 8월 15일을 위해 계속 저항시를 쓰신 분 아니신가? 저항시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신 것에 불구하고 계속 저항시를 쓰시며 이름까지 죄수번호로 바꾸셨다. 결국 광복 1년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

시기 전까지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신 이육사 선생님. 지금 얼마나 존경을 받고 계신가?

(윤○○ 군의 글)

한 일년 전쯤에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있었다. 바로 삼성의 변호사로 일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 행위에 대해 양심고백을 한 사건이었다. 그 때 당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었었다. 사회정의의 수호자라는 의견과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소(小)를 위해 대의를 희생시킬 순 없는 법이다. 병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병태에게 석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석대에게 굴종한 이상 배신행위 이지만, 크게 보면 자신의 공범행위를 뉘우치고, 학교에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대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병태가 좀 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싶었다면 대의를 택하여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어야 한다.

(박○○ 양의 글)

제시된 인용문을 보면 첫 번째 글은 병태가 석대를 고발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육사 시인의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요는 병태도 이육사 시인처럼 석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저항하다 보면 석대를 꺾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육사와 한병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해석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이에 비해 두 번째 글은 병태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김용철 변호사 사건’을 도입하면서 병태의 경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충실히 입론해 나가고 있다. 즉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병태의 고발을 인간적인 배신행위와 대의의 대립이란 공통분모로 설정하고 대의를 선택해야 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해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논술문을 살펴보면 내용 설명이나 체험 혹은 사례의 제시가 곧 논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논술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논술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품 내용에 대한 나열과 해설을 위주로 한 글들은 학습자가 생성해 낸 의미의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체

협적 근거나 배경지식의 평면적 제시 또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해 내는 데 있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논술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학습자들의 논증 능력 향상에 있으며, 논증 능력은 필자의 독창적 해석 능력과 적합한 의미 추출 능력으로 집약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논제를 제기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글의 경우는 학습자의 능동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논술 교육은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합당한 의미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IV. 논술 교육을 위한 제언

본고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논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문학을 활용한 논술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11학년 학습자 104편의 논술문을 논거의 출처와 논증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글쓰기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해 보고, 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드러난 논술 교육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기존의 논술 교육은 학습자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특히 논술 쓰기를 위한 실마리로 제시되는 읽기 자료들은 고등학생의 수준을 넘어 대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채워졌다. 이는 논술 쓰기가 입시 목적에 맞춰져 있어 발생한 필연적 현상이지만 그 결과 논술은 학습자에게는 어렵고 고통스런 글쓰기가 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르치기 힘든 글쓰기로 자리매김하고 말았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글 쓰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특수한 몇몇에게만 논술 쓰기가 필요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논술 교육은 학습자 요소에 대한 많은 배려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글쓰기 행위가 지난 어려움에 자료의 난해성이란 새로운 부담

을 부과하는 기준의 논술 쓰기와 다른, 학습자들에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술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 체험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장르를 불문하고 잘된 글이란 필자가 생성해 낸 의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필자가 생성해 낸 의미가 독창성과 정합성을 가질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다. 본고에서는 논술에서 필자의 활발한 의미 생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일환으로 문학을 활용한 논술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앞으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논술 교육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09. 10. 31. 투고되었으며, 2009.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1. 대상 자료

서울 소재 S고등학교 11학년 학습자 논술문 104편

2. 참고문헌

- 박윤우(2007), “인지적 과업으로서 ‘문학 논술’과 비평 교육의 지평”, 325-327, 『문학 교육학』 24.
- 정재찬(2006), “국어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 연구』 25.
- 우한용(2008), “문학과 논술, 그리고 삶”, 『문학과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 로젠 블라트 저 / 김혜리 · 염해영 역(2006),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 윌리엄 크레인 저 / 송길연 외 역(2005), 『빌달의 이론』, 시그마프레스.

<초록>

문학을 활용한 논술 쓰기 사례 분석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대상으로—

이영호

논술 교육은 학습자가 지닌 인지 능력과 체험 영역을 고려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활발한 사고와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은 경험에 바탕한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돌아보고 활발한 글쓰기를 수행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논술교육에서 문학이 지닌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대상으로 11학년 학습자들에게 논술문 쓰기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출받은 104편의 논술문을 논거의 출처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작품 내적 근거에 기반한 경우가 60%, 개인적 체험을 활용한 경우가 25%,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경우가 15%정도 나타났다. 작품 내적 근거 위주의 서술은 설명 위주의 서술과 해석 위주의 서술로 구분되는데, 필자의 명확한 관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석 위주의 서술이 좋은 논술문을 산출하였다. 개인적 체험을 활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적절한 경험을 제시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개인적 체험에서 일반화된 가치를 추출한 경우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매체 경험이나 교양 상식, 독서 경험 등이 활용되었는데 배경지식을 단순히 제시하기보다 현상을 바라보는 구조화 된 관점을 제시한 경우에 좋은 논술문이 생성되었다. 이밖에 학습자 스스로 구체화된 논제를 제기하고 그 물음에 답해 나가는 논제 제기를 통한 서술의 경우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논술문을 분석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유사한 사례의 제시를 논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논술교육은 학습자의 독창적인 해석 능력과 적합한 의미 추출 능력을 기르는 데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어】 문학을 활용한 논술, 해석 위주의 서술, 일반화된 가치 제시, 구조화 된 관점에 기반한 서술, 논제 제기를 통한 서술

<Abstract>

An Analysis of Essay Case Using Literature Text

—On the Subject of Lee, Munyeol's <Our twisted hero>—

Lee, Young-ho

Writing essay education should bring learner to think actively on considering learner's cognition and experience. Literature is a great help to essay education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ncrete figure. This paper is written with 11th grade learners' essay for <Our twisted hero> focusing on the utility of literature.

This study classified 104 essays for argument source. 60% of essays is based on inner argument of the work, 25% of essays used learner's experience, and 15% used learner's schema. Description focusing on inner argument of the work is divided into description focusing on explanation and description focusing on interpretation. The essays based on description focusing on interpretation is highly valued because of clear viewpoint. Among the essays used learner's experience, the texts presenting general value is highly estimated. In the case of using schema, good texts is produced presenting structured view.

Learners tend to regard the presentation of similar case as the completion of proof in the result of essay analysis. In this point writing essay education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the interpretation ability and the ability of producing meaning for learners.

【Key words】 essay using literature text, description focusing on interpretation, presenting general value, description based on a structured view, description proposing subject